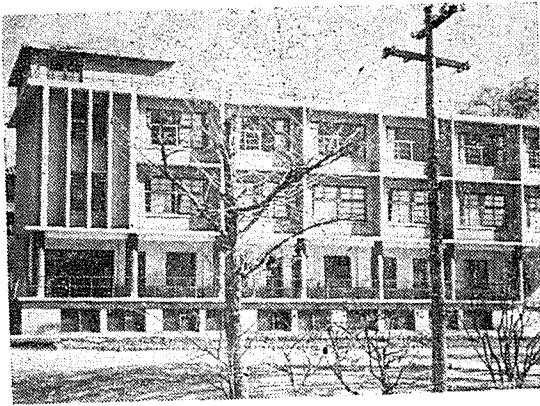


龍山中·高等 學校圖書館

洪 棟



圖書館全景

머릿말

學校圖書館을 擔當한지 不過 數朔밖에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司書敎師로서의 初年兵이다.

따라서 學校圖書館에 關하여 무엇을 말하고 曰可曰不 할 處地도 되지 않는다.

다만 길지도 짧지도 않은 10餘年間的 敎職生活을 바탕으로 平素에 關心을 가지고 있던 學校圖書館을 한번 이룩해 보고자 하는 意志 하나로 學校圖書館을 擔當하게 된 것이다.

圖書館을 整理해 가면서 날로 새롭게 當面하는 許多한 問題點에 부딪칠적 마다 놀라움과 失望을 느끼면서도 날로 面貌를 달리해가는 學校圖書館의 모습과 圖書館周邊에 모여드는 學生들의 眞實性있는 態度에서 自慰의 口實을 發見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本校의 圖書館 運營을 爲하여 많은 激動과 助言을 아끼지 않아 주신 韓國圖書館協會 崔根滿先生과 成均館大學校 附設 韓國司書敎育院 金仁遠先生에게 紙上을 통해 感謝의 말씀을 드린다.

日淺한 經驗으로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比較的 規模가 큰 圖書館을 試行錯誤的으로 改善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改惡이 됐을 런지도 몰라 걱정스럽기만 하다. 先輩諸賢의 아낌없는 指導와 助言을 바라면서 本校의 學校圖書館 現況을 紹介하기로 한다.

沿革

우리 龍山中·高等學校에 學校圖書館이 設置되던 當時에는 中學校와 高等學校가 分離 運營되고 있었던 時節이 었다.

따라서 中學校와 高等學校는 各已 學校圖書館 設置 時期가 다르다.

中學校의 境遇를 보면 1958年 9月 校舍의 一隅에서 小規模의 圖書館이 發足하였다. 當時에는 閱覽室을 만들만한 教室의 餘裕가 없어 館外貸出을 爲主로 하여

運營하고 있었다. 그러던 中 1960年에 新館校舍가 落成되면서 그 3層 120坪을 1室로 하여 圖書館을 만들고 藏書 1,146卷과 126席의 閱覽席을 마련하여 半開架制로 圖書館을 開館하였다.

高等學校의 境遇 1958年 4月 獨立建物로 된 別館 2個教室과 그 附屬施設을 圖書館으로 하고 153席의 閱覽席을 마련하고 1,096卷의 藏書를 가지고 閉架制로 하여 開館을 하게 되었다.

그後 中·高等學校가 다시 統合 運營됨에 따라서 1965年 3月 中·高等學校圖書館을 統合하기로 決定하고 圖書館의 一大擴張을 期하는 한편 施設을 刷新하여 名實相符하는 大規模의 學校圖書館의 面貌를 갖추게 오늘에 이르렀다.

圖書館施設

本校의 圖書館을 便宜上 本圖書館과 自習室로 區分하고 있다.

本圖書館으로는 新館校舍 鐵筋콘크리트 3層의 獨立建物의 2層과 3層 延建坪 240坪을 使用하고 있다.

이 本圖書館에는 다음의 各室이 마련되어 있다.

(1) 開架閱覽室

3層 120坪을 1室로 하여 만들어진 舊 中學校圖書館에 閱覽席 150席을 마련하고 四面의 窓下와 壁面을 利用하여 5,000餘卷의 學生閱覽用藏書를 配列하여 開架制로 閱覽室을 꾸며 놓았다.

閱覽室內의 一部를 막아 參考閱覽室과 整理室을 만들었고 雜誌閱覽席을 따로 區分하였다.

한편 屋上에 있는 8坪假臺의 작은 방을 利用하여 書庫를 兼하는 作業室로 使用하고 있으며 屋上에 오르는 昇降階段의 廻廊을 利用하여 所持品保管所로 하고 複道에는 新聞閱覽席을 만들어 日刊新聞과 各大學報를 備置하였다.

(2) 一般閱覽室

本圖書館 2層 120坪에는 中·高等學校別로 各己 1室에 60席式의 閱覽席을 配列하여 一般閱覽室이라 稱하고 主로 館外貸出된 圖書의 閱覽, 自己책으로 工夫하는 學生들의 豫習과 復習, 開架閱覽室이 滿員일 경우에 室外貸出閱覽 그리고 Club 活動 등의 集會 등의 場所 등으로 使用하고 있다. 밖에 複道를 利用하여 休憩所를 만들었다.

(3) 敎職員研究室

2層에 있는 10餘坪의 작은 방을 利用하여 敎職員研究室을 準備하고 있다. 敎師用圖書 1,000餘卷과 그밖의 敎育資料를 모아 꾸며질 이 研究室은 12席의 敎職員閱覽席이 마련된다. 이것이 完成되면 本圖書館의 今年度의 事業은 計劃대로 完成이 되는 셈이다.

이 研究室은 同時에 會議室로도 使用되기도 한다.

다음에 自習室은 舊 高等學校圖書館을 轉用하여 만들어졌다. 2個의 敎室 延建坪71坪에 130席의 閱覽席을 配置하여 主로 中3, 高3 學生들의 工夫방으로 使用하고 있다. 上級學校의 入試準備를 하는 學生들에게 조용하게 工夫할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진 이 自習室은 그 目的에 符合하도록 하기 爲하여 夜間開館과 公休日 및 日曜日까지도 開館하고 있어 事實上 年中無休로 學生들이 利用할 수 있다.

이리하여 本校의 學校圖書館은 延建坪 311坪에 總座席數 412席에 達하고 開架閱覽室, 一般閱覽室, 敎職員研究室 그리고 書庫 整理室 參考閱覽室 등을 갖춘 大圖書館으로 짜임새를 자랑하게 되었다.

圖書館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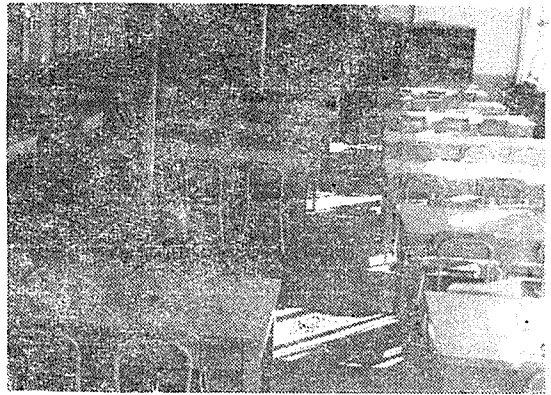
圖書館藏書는 敎師用과 學生用으로 大別하고 있다.

前者는 敎職員研究室에 1,000餘卷을 後者는 開架閱覽室에 5,000餘卷을 整理 配列하여 閱覽토록 하고 있다. 그 밖에 未整理圖書 約 1,300卷이 書庫에서 整理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하여 藏書總數는 7,300餘卷이 되는 셈이다.

이들 藏書들은 모두 今年에 KDC(1964年版)에 依하여 새로이 分類하였다.

이미 分類된 藏書 7,300餘卷을 再分類한다는 일은 너무나도 거창한 作業이긴 하였으나 中·高等學校圖書館藏書를 統合하고 보니 各己 獨自의 分類方法을 使用하여 一致하지 않을 뿐더러 分類가 不完全하여 그대로 使用할 수가 없어 거창한 일인 줄 알면서도 革新을 斷行하게 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分類는 勿論 이에 따라서 編目까지도 每樣 새롭게 해야한다는 負擔을 지게 되어 今年 一年동안은 온통 統合에 따르는 事務整理로 餘念이 없었다. 더우기 圖書館奉仕를 正常的으로 繼續하면서 그 餘暇에 整理를 하는 關係로 아직도 未及한



開架閱覽室 內部

點이 非一非再하여 編目만도 今年에는 書名과 著者名으로 滿足하는 수 밖에 없고 來年에 主題名을 添加하여 辭典體로 만들기로 하고 있다.

著者記號는 李載喆氏의 記號表를 使用하였으며 洋書는 東書와 區分하여 따로 配列하였고 文庫版은 別途로 取扱하였다.

圖書館資料의 確保는 每年 新學期에 新入生을 對象으로 하는 圖書寄贈運動에 依存하고 있다. 圖書館藏書 10,000卷 突破를 目標로 1963년부터 展開된 이 圖書寄贈運動은 相當한 成果를 거두면서 3個年에 접어 든다. 1965年度의 寄贈圖書는 600卷에 達하였으며 明年에는 800卷을 目標로하여 圖書寄贈運動을 展開할 豫定이다. 圖書寄贈運動을 成功的으로 展開하기 爲하여 今年에는 學校圖書館에 必要한 圖書를 미리 選定하여 카드에 記入해 두었다가 모든 新入生이 學校圖書館이 必要로하는 圖書를 寄贈하여 주도록 指導하려고 하고 있다.

學校圖書館 豫算이 別途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채 自治會에서 維持費를 나누어 쓰는 現實情下에서는 圖書購入을 爲하여 많은 豫算을 割當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自然的으로 寄贈運動으로 蒐集되는 圖書가 資料確保에 大宗이 된다.

앞으로 모든 學校圖書館의 豫算事情이 好轉되도록 特別한 配慮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敎師用圖書는 學校 需用費에서 支辨을 받고 있으나 元來가 넉넉지 못한 豫算이어서 敎師들의 要請에 應하지 못하는 點 여간 不安한 일이 아니다.

圖書館奉仕

本圖書館은 全日制로 하여 始業時間으로부터 下午8時까지 開館한다. 但 日曜日과 公休日 그리고 全校行事日은 休館한다. 그 밖에 休暇中의 一定期間과 圖書館整理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休館하도록 되어 있다.

自習室은 年中無休를 原則으로 하고 下午 11時까지

開館한다. 다만 日曜日과 公休日은 下午 5時까지 開館 하도록 하고 있다.

圖書館運營은 2名의 司書敎師가 專擔하며 圖書館奉仕를 爲하여 學生圖書委員 36名이 館外貸出, 館內閱覽 등의 Service에 當하고 있다.

圖書의 館外貸出은 아직 全校를 對象으로 하지 못하고 高等學校 1,2學年 學生에게 “800”文學類의 책을 貸出한다. 貸出은 1回1卷 貸出期間은 5日間 一次에 限하여 貸出期間을 延期할 수 있다.

高 1,2學年 에게만 文學類에 限하여 貸出하는 理由는 첫째 圖書館藏書가 아직 全校生에게 貸出할만큼 充分하지 못하다는 點과 文學類中에서 그 數가 많은 各種 文學全集類가 大部分 高等學校程度의 學生에게 適當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中 3과 高3은 進學準備에 餘念이 없으므로 貸出對象에서 除外하였으며 年內로 中1과 中2學年에 貸出을 擴大하는 方向으로 準備를 서 두르고 있다.

圖書館閱覽狀況

圖書의 館內閱覽은 圖書館自習의 境遇와 晝食時間의 圖書閱覽 그리고 放課後의 圖書館利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떤 境遇에 있어서나 開架閱覽室에 入館한 學生들은 누구나 아무런 節次없이 마음대로 읽고자 하는 책을 書架에서 꺼내어 읽을 수 있다. 다만 책의 位置를 알아 두기 爲하여 座席番號를 書架에 꽂아 두었다가 책을 꽂은 다음 가지고 나가도록 하고 있다.

圖書館自習은 缺講時間에 配當된다. 定期的이기는 하나 圖書館敎育의 機會로 利用하면서 讀書指導도 兼한다. 低學年의 境遇 讀書의 習慣을 길러주는 일은 重要한 일의 하나이며 아울러 圖書館倫理를 體得시키기 爲하여도 圖書館自習은 意義가 깊다. 한편으로 學生들을 圖書館에 誘致하여 讀書生活를 자극하는 契機가 되기도 하며 圖書館과 親近感을 갖도록 함으로써 손 쉽게 圖書館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도 한다. 學校圖書館에서는 午前中 2時間程度를 圖書館自習指導를 擔當하는 敎員 學校의 敎科時間運營上에서 뿐 아니라 圖書館自習을 爲하여도 좋으리라고 본다. 境遇에 따라서는 收容能力이 許諾한다면 여러 學級을 同時에 指導하는 것도 無妨하다.

晝食時間中의 圖書館利用은 意外로 좋은 成果를 挙우고 있다. 中學生의 境遇 圖書館에서 工夫하는 時間을 보면 하루 2時間程度가 가장 많다. 이런 點으로 미루어보면 晝食時間을 利用하여 約 40分內外의 讀書를 즐기는 것도 큰 意義가 있다고 보며 또 實相 1時間의 圖書館自習과 비등하다. 150席의 閱覽室에 200名 以上

의 學生이 入館하여 各己 한卷式의 책을 들고 座席을 채우고 通路에 或은 서서 或은 앉아서 讀書에 餘念이 없는 것을 보면 사뭇 마음이 흐뭇해 진다. 晝食時間中의 圖書閱覽에는 一切의 節次가 省略된다.

그러나 本格的인 圖書館使用은 亦是 放課後가 된다. 下午 5時頃이면 圖書館의 各閱覽室은 거의 滿員이 된다. 9月과 10月의 圖書館統計를 보면 圖書館利用者數는 每月 9,000名을 上廻하고 있으며 高1學年生의 10月中 館外貸出은 700餘卷이 되고 있다.

圖書館敎育

本校에서는 아직 圖書館敎育을 爲하여 定期的으로 敎科時間配當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敎育의 重要性으로 보아 適切한 時期를 만들어 圖書館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新入生에 대한 指導는 3月中에 이루어진다. 新學期初에는 大概 特別時間表에 依하여 學校生活 全般에 걸친 Orientation이 計劃되는 關係로 圖書館에 對한 Orientation도 이 時期에 實施된다. 班別로 約 2時間程度의 Orientation으로 圖書館의 現況과 利用上의 節次가 指導된다.

다음으로는 不定期的이기는 하나 圖書館自習時間을 利用한다. 開架閱覽室을 利用하는 學生들에게는 책을 찾는 方法과 책을 제자리에 꽂아 주는 訓練이 必要하다. 다음으로는 圖書의 取扱과 讀書衛生 讀書要領과 讀書後의 處理등이 次例로 다루어 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圖書委員에 對한 訓練이다.

圖書館의 成敗의 關鍵은 亦是 圖書委員에게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만큼 學校圖書館에 있어서는 學生圖書委員의 位置가 重要하기도 하거니와 따라서 보다 細密한 計劃에 依하여 敎育計劃이 樹立된다. 3月中 1個月間 每日 放課後 1時間式 都合 20時間의 特別敎育을 畢한 然後에 各己分擔된 任務에 當하게 된다. 그 後로는 機會있을 적마다*그때 그때의 問題點의 追加指導한다.

運營의 方向

앞으로 本校가 圖書館 運營에 있어 努力하고자 하는 점을 몇가지 列舉한다면

첫째 圖書館資料의 質의 向上을 圖謀하는 일에 注力하고자 한다. 많은 學校圖書館이 그러하듯이 創設初期에는 資料蒐集에 性急한 나머지 有用無用의 資料를 分別할 餘地도 없이 蒐集하고 있으나 早晚間 그로 因하여 생기는 여러가지 隘路에 부딪치게 된다. 資料로서의 生命이 없는 것을 많이만 가지고 量的膨脹만을 자 (29面に 繼續)

한 고된 가운데의 나의 情熱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저 『現在の 文化的 結實을 保存하고 保存된것을 傳授하여……』로 시작되는 웅장한 祝辭의 內實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 受講生이 모두 알고 있다.

나는, 「圖書館의 苦悶」을 배웠다. 내가 배운 것은 다만 이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後輩도 맞이하고, 그들 新入生들에게 자그마한 「환영회」도 베풀어, 부득이 한 층의 것해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講義始作時間을 좀 늦추어 주십시오」, 「講義室을 옮겨 주십시오」, 「講義內容의 대강을 프린트 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등등의 투정도, 『한국사서교육원』은 『사서 고생하는곳』이라던 헤실꾼 才談도, 어느덧 자취가 없어지고 모두의 얼굴에서 한 가락 새 파란 覺悟의 빛같이 떠나지 않음을 본다.

202階段을 묵묵히 오르 내리며 訓練된 우리들 舊圖書館人(?)들은, 바야흐로 이른바 「修了準備」의 論議를 들으면서 이번엔 또 數字를 알 수 없는 벽찬 階段앞에 와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두 번째의 階段은, 言必稱 우리가 맞이한 第一의 苦悶이면서도, 모두들 그러나 自己만의 皮膚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하여 圖書館入門의 最少限의 過程을 끝 마친 후에,

우리의 圖書館界가 가지고 있는 山脈처럼 險峻한 階段을 다시 밟아 가는 사이,

좋은 일이나 굵은 일이나,

저, 202階段 위에 뿌린 나의 꿈이 섞인 맘을,

나는 영 잊지 못할 것만 같다.

(筆者 韓國司書教育院生)

(22面에서 繼續)

망삼는 일은 옳지 못하다는 點에서 現在の 資料를 차근차근 整理하면서 보다 嶄新하고 價値있는 資料를 蒐集整備하여 늘 새로운 Information을 얻을 수 있는 生動하는 圖書館을 만들고 싶다.

둘째 學校의 教育活動속에 깊숙히 파고들어 깊은 紐帶를 맺으면서 各教科學習活動과 圖書館을 關聯시켜 圖書館을 積極的으로 活用하도록 意圖的인 努力을 傾注하려고 한다.

셋째 學生들에게 보다 幅 넓은 圖書館 Service를 提供함으로써 그들의 學習活動과 知的成長을 돕는 일에 注力하며 讀書를 生活化시켜 圖書館을 그들의 生活領域속에 끌어 넣도록 하는 運動을 벌이려고 한다.

넷째 圖書館을 통하여 學生들의 社會性을 기르고 遵法精神을 높이며 公共施設을 愛用하는 態度를 기르고 良心을 닦는 教育의 境으로 活用되도록 努力하고자 한다. 教育活動이 바람직한 人間形成을 돕는 活動일진대 圖書館은 그러한 活動의 境으로 適合하다고 본다.

맺 는 말

學校圖書館運動이 일어난지 不過 10餘年 그 사이 이 運動은 全國的으로 波及되어 모든 學校들이 다투어 學校圖書館을 設置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圖書館法의 施行은 이 運動을 더욱 促進시키는 役割을 하였다. 學校圖書館이 이토록 發展할 수 있었던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要約컨대 學校圖書館이 韓國의 現實에서 무엇

보다도 切實하게 必要한 것을 認定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祖國의 近代化의 課題를 目前에 두고 우리가 일찌기 近代化하지 못한 原因을 生覺해 보면 그 原因의 하나로 “읽지 않는 國民”이었다는 것이 添加되리라.

或者는 貴族社會의 學風을 말할지 모르나 一般化되지 않은 特殊層만의 學風이 國力の 바탕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世代는 圖書館과 因緣이 먼 生活 속에서 成長한 사람들이거니와 우리의 後孫들에게 까지 그런 傳統을 물려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時間과 空間을 超越하여 수 많은 知慧가 整頓되었고 숙한 人間の 珍貴한 經驗이 整然하게 간추려져 있으며 每日의 生活속에서 當面하는 許多한 問題들을 解決할 Information이 集結된 圖書館을 外面하고 서는 祖國의 近代化는 可望이 없는 것이다.

여기 새로운 젊은 世代에게 圖書館을 設置해 주고 圖書館教育을 통하여 그 使用을 習慣化시키려는 學校圖書館의 使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젊은 韓國의 知性人들이 날로 發展하고 새로와지며 急速度로 變化해 가는 現代에 뒤지지 않기 爲하여 生活과 發展에 必要한 모든 Information을 찾는 方便으로 効果的으로 圖書館을 利用하게 되는 날 韓國의 將來는 光明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筆者: 龍山中·高等學校 司書教師)